

식 순

1. 개 식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독립선언서 낭독

1. 천덕송 합창 _ 공 락 가

1. 기 념 사

1.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

1. 3·1절 노래 합창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

기념강연 _ 임형진 교수

기념행사

탑골공원 의암성사 동상참례 _ 청년회 주관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_ 강북문화원 주관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자주민임을 선언함으로써, 자손만대에 독립의 정신을 불러일으킨 3·1 운동 제 96주년입니다. 전국의 천도교인, 그리고 북녘의 동덕들, 국내외 동포들,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뜻 깊은 오늘을 기념하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을 다짐코자 합니다.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며 이 땅을 유린한 이래 을사늑약과 불법적 한일병탄이 자행된 이래, 천도교단은 의암성사의 영도 아래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기미년 3월 1일 기독교와 불교계, 학생, 시민과 전국 방방곡곡의 갑남을녀까지 온 민족을 일원화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3·1 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 선천의 왕토신민관념을 후천의 자주천민(自主天民)으로 재구축하는 반본(返本)운동이었으며,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향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략과 약탈적 식민주의로 일관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세계 흐름에 균열을 일으키며, 평화와 공존, 신문명과 새 하늘 새 땅에 새로운 사람과 문명(新

天 新地 新人)의 비전을 제시하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횡행하는 오늘
의 현실에서, 3·1 정신은 낱알이 새롭게 우리 민족의 강령(綱領)이 되고
인류 미래의 지표(指標)가 되는 것입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96주년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앞의 과제는 여전히
엄중합니다. 무엇보다 제국주의의 망령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일본의
행보는 그동안 지켜왔던 평화헌법마저 개정하여 다시금 군국주의로 재무
장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오늘도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함성은 애절한 메아리로 떠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족자존을 훼손하고 독립 건국의 역사를 폄훼하는 몰
지각한 역사 인식이 준동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강국은 100
년 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형태와 그 본질이 조금도 달라지지 못한 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로써는
이민족 강압 통치보다 더 큰 고통으로 점철된 동족상쟁과 분단의 역사가
7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뼈아픈 현실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는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고 하늘과 땅마저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각자위심, 불순천리 불고천명의 시대이며, 동학 천도의 진
리와 영성을 더불어 요청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3·1 운동의 참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침, 그동안 정성을 다해 추진해 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

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100년 전의 역할을 재현함으로써, 잃어 버린 천도교의 역사, 잃어버린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역사를 되찾으라는 엄중한 시대 역조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포덕 160년까지 4년 동안 의암성사께서 3·1 운동을 준비하던 그 시절 천도교인들의 정신과 자세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포덕160(2019)년은 우리나라가 3·1 정신으로 통일 조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상을 온 천하에 제시하는 인내천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3·1 정신을 현창하고,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참회하며, 민족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가는 일을 바로 지금부터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의암성사께서 그러했듯이 전 민족의 차원에서, 대승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전 지구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먼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여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3·1 운동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무한경쟁의 논리가 비등하는 시대에 유무상자(有無相資)와 인오동포 물오동포(人吾同胞 物吾同胞) 정신을 바탕으로,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참 뜻을 구현코자 하는 한민족 집단지성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인류 역사상 최상의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최악의

불행에 처한 모순의 해결책은 바로 3·1 정신의 구현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3·1 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천개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우리 민족, 특히 천도교단이 사명을 다하는 길임을 다시금 직시합니다.

셋째, 96년 전에는 순국 순교적 차원에서 종교계가 앞장섰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영성 차원의 비전이 요구되는 점에서 종교계의 대연합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출발점입니다. 종교간 갈등을 넘어 연대하고 소통하였던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기념사업의 제1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천도교단 위주가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차원, 범종교적·범시민적 차원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입니다.

넷째, 3·1 운동의 정신적 유형적 자산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 공유의 역사 문화적 지혜의 유산으로 널리 현창되고 길이 보존되어 무궁한 귀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3·1 정신 계승의 출발점은 현하 민족 최우선의 과제인 분단 극복에 있으며,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통일에 앞서 잃어버린 민족 심성, 평화 애호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며,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것입니다. 3·1 운동 100주년 사업과 통일운동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민족의 지혜를 세계인에게 제공

하는 것이 조선인의 자주 독립의 대의임을 공언했던 3·1 정신임을 재차 심정해야 할 것입니다.

천도교단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3·1 독립선언서의 근본적 시대정신은 바로 천도교의 정신이며, 그 결실은 상생과 생명 평화의 세계 건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녘의 천도교인과 동포 여러분! 동학혁명 120주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시 3·1 운동 100주년을 함께 준비하자고 재차 제안하는 것은 분단 70년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적 통일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사명의 시계가 그만큼 촘각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송이 꽃을 피우면 삼백 예순 날에 온 세상에 봄이 오듯이,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일동일정에 한울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민족적 대의에 충실한 천도교 역사의 전통을 계승한다면, 이러한 과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 양심적 시민들께 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과 북, 해외의 천도교인들과 더불어 3·1절 기념식을 봉행하며, 천도교인들이 다시금 민족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함께 연대하여, 96년 전 그 날처럼,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 장정을 시작합시다.

천도교인 여러분!

3·1 운동이 위대한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삼엄한 무단통치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고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설 수 있었던 이신환성 수련의 위력이요, 일시에 수백만 명의 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포(연원)와 접을 근간으로 한 천도교 조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창도 이래로 보국과 안민, 포덕광제의 대의 속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킬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지지와 성원이 함께했음을 새삼스레 재확인합니다. 민족의 역사, 인류의 과업이 다시 동학 천도교의 진리와 실행을 요청합니다. 착수가 곧 성공이라 한 선열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에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엄중히 맹세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궁한 한울 속에서 무궁히 확장되는 길도 바로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 정성을 다하는 길의 끝에 자아완성도 성취될 것이니, 기쁘게 노래하며 춘삼월 호시절을 맞이합니다.

포덕 156(2015)년 3월 1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

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버리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뺏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꺾함에 무슨 뜻인들 꺾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게 뚝뚝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국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軸)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여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듯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 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 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을미년은 조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으로서 우리 민족사의 희비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된 3·1 정신으로서 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만세 시위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선언한 지 9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3·1 정신의 샘이요 뿌리이며,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우리 교단 으로서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천도교의 보국안민 정신과 후천개벽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3·1 정신은 단순한 자주독립을 넘어 인류공영의 새 세계를 향한 동학 천도교의 비전을 반포하고 실천한 대장전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천도교단은 3·1 운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암성사께서는 조국의 독립은 종교와 계층, 남녀노소, 빈부고하를 물론하고 전체 조선인이 하나 되어 전개해야 한다는 철학과 신념 속에서 종교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대동단결과 일

치된 목소리로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범민족적인 만세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역사적인 3·1 독립운동을 영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 3·1 정신과 운동사를 기반으로 성립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체제를 달리한 채 비방과 대결을 그치지 않아 민족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국안민을 위하여 수운대신사께서 동학 천도교를 창도한 이래로 개벽 세상을 구현하는 길로 매진해 온 천도교단은 3·1 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조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의 평화 시대를 여는 개벽적인 과업입니다.

그동안 교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계와 관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에게 3·1 운동 100주년의 해가 민족통일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 결과 7대 종단의 수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중진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약속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단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금년부터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총부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에 우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3·1 운동 100주년의 기념사업은 100년 전 전체 민족이 하나 되어 일치된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불렀듯이 7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를 넘어 해외동포까지 망라한 전체 민족 성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도교단은 그 중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3·1 운동정신인 민족 대화합을 위해 이념적, 사상적 차이를 극복 함은 물론 지역 간, 계층 간 질서와 반목 그리고 갈등을 해결함과 함께 북측의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범민족 적인 행사로 준비해 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중에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을 선언하는 대국민 선포식과 함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민족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한의 천도교단을 비롯한 민족진영과도 활기찬 실무단 등을 구성하며 교인은 물론 전 국민적 여론 수렴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민족적 차원의 기획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넷째, 3·1 운동이 한낱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조국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사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3·1 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현창하고 민족통일과 세계 평화의 신시대 개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하여 천도교단의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금년부터 시작하는 3·1 운동 100주년사업이야말로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서나 다시 개벽의 새날을 위해서나 우리 교단으로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는 무엇보다도 동덕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한 경과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나,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상세히 알려 드리겠으니,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포덕 156(2015)년 3월 1일

종무원장 김 인 환 心告

3·1운동과 초대 대통령 의암 손병희

임형진(천도교 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20년 전 갑오년의 주역들인 전봉준과 손화중은 모두 그해 12월부터 체포되어 이듬해 서울의 감옥서에서 처형되었다. 김개남 장군은 체포된 즉시 전주에서 즉결 처형되어 그의 수급만이 서울 서소문 감옥에 효시되었다.

그리고 1898년 5월에는 동학난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동학의 2대 교주이자 최고 지도자인 해월 최시형마저 서울 단성사 인근에서 교수형되었다. 이로서 동학혁명의 길고도 긴 항쟁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살아 남아 혁명의 불씨를 살린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손병희였다.

서자 출신 감동시킨 ‘평등 교리’

손병희는 1861년 4월8일 충청도 청주(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향리의 서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반골기질이 강하여 서자 출신이라는 신분에 불만을 품고 부모자식간과 형제 간에도 다툼이 많았다. 그런 그가 가족과 화해를 한 것은 부친의 사망 이후 아버지가 자신을 끄찍이 아꼈다는 것을 뒤늦게 안 뒤였다. 1882년 조카 손천민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동학의 교리 때문이었다.

3년 뒤 해월 최시형을 만난 그는 그와 함께 공주의 가섭암에 들어가 시험을 받았다. 즉, 다혈질이고 급한 그에게 해월은 밥 짓는 일, 나무하는 일, 짐 나르는 일 등을 혼자 도맡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해월은 부역의 술을 손병희에게 걸게 한 후 일을 마치면 이를 다시 뜯어 고치게 하기를 무려 일곱 차례나 시켰다.

그러나 손병희는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얼굴빛 하나 변색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수련을 거친 손병희는 해월에게 훗날 동학혁명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제자이자 후계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4년 전라도 지방에 들불처럼 번지던 제1차 동학혁명 당시 해월은 만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해월 최시형에게는 10여년 전 경북 영해지방에서 일어났던 이필제의 난이 떠올랐다. 당시 억울한 스승님(교조 수운 최제우)의 죽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이필제는 해월을 다섯 번이나 찾아와 거사를 부탁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해월이 허락을 하자 이필제는 경상북도 지방의 동학도들을 이끌고 영해관아를 점령해 군수를 참수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경상도의 전 병력이 총동원되어 동학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필제도 체포되어 죽고 해월도 또 다시 보따리를 싸서 오랜 기간을 잠행하여야 했다. 이처럼 해월에게는 서투른 거사가 오히려 동학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주성까지 점령한 동학군들을 끝까지 만류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청일전쟁을 승리한 일본군이 조선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국

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마침 전라도 지방의 동학도들은 삼례에서 다시 모여 재기포를 결의하고 해월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접 통령 손병희

결국 9월18일(음력) 해월은 전국의 동학도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정식으로 전라도 지역의 동학도(남접) 지휘관으로 전봉준을, 그 외 지역을 북접으로 칭하고 최고지도자에는 당시 34살의 의암 손병희를 통령으로 지명했다. 해월의 명령에 따라 경기도 동학도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각 지역별로 기포한 경기도 동학도들이 광혜원(충북 음성)에 있던 북접에 편입된 것은 대략 9월 말이었다.

특히 9월 25일에는 음죽관아(이천)를 공격하였고 이어서 안성을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 무장을 갖추었다. 마침내 북접에 합류한 경기도 동학도들은 편의장에 광주 출신인 대접주 이종훈, 편의사에는 이용구가 임명되었고 그 휘하에 각 지역별로 동학군이 조직되었다. 수원 김내현, 안성 임명준과 정경수, 음죽 박용구와 권재천, 양지 고재당, 여주 흥병기와 임순호·신수집·임학선, 이천 전규석과 전창진·이근풍, 야근 신재준, 지평 김태열과 이재연, 광주 염세환 등이 당시 경기도 지역의 접주로 참여한 동학군의 지휘자들이었다. 이를 보면 당시 북접군의 주력부대가 경기도 동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충청도 덕산에서 기포한 내포지역의 동학도들도 집결하기 시작하였고 하동, 남해 등지는 물론 문경, 예천, 구미, 선산 등의 경상도 지역의

동학도들 역시 기포하기 시작하였고 강원도 지역은 이미 강릉 관아를 점거하고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황해도 지역에서도 해주성을 공격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동학혁명을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김홍집 내각은 9월 하순에 신정희를 도순무사로 임명하고 순무영을 창설하게 하였으며, 각 군현에는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초멸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두황을 죽산부사로 임명하는 한편 장위영 영관으로 임명하였고 성하영을 안성군수와 경리청 영관으로 임명하여 출동시켰다. 그리고 일본군도 출동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동학군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롯한 북접부대는 10월5일에 보은으로 향하는 길에 괴산관아를 습격해 승리하였고 8일에 보은 장내리에 이르렀다. 여기서 비로소 대오를 형성하니 통령 손병희를 중군으로 하고 경기 안성의 정경수를 선봉진, 이천의 전규석로 후군으로 삼고, 광주 이종훈을 좌익, 황산 이용구를로 우익을 하는 등 동학군을 재편성하였다.

북접부대는 해월의 지시에 따라 10월 16일 논산에서 전봉준의 남접과 만났다. 역사적인 남북접이 결합된 장소는 논산의 소토산(小土山, 작은 흙산)이었다. 이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은 전봉준과 손병희는 많게는 20만에서 10만 정도의 동학군을 지휘해 공주를 향해 진격했다. 전봉준 부대는 노성과 효포를 거쳐서 우금티로, 손병희 부대는 이인을 거쳐서 우금티를 향했다.

소와 함께 넘어가면 반드시 도적이 나타나니 소를 데리고 넘지 말라는 우금티(牛禁峙) 고개에서의 결전은 동쪽의 우금티에서 서쪽의 우금티에 이르기까지 30리에 걸친 10월 23일부터 막이 올랐다. 그러나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11월 11일에 노성까지 물러서게 되었다. 특히 공주의 송 장

배미는 공주성을 우회하여 습격하기 위한 동학군의 특공대가 공격을 가한 곳이었지만 사전에 이를 알아챈 일본군에 의하여 동학군들의 집단 무덤이 되었다. 손병희 통령은 의형인 전봉준과 생사를 같이하여 논산, 전주를 거쳐 원평 구미란에 이르러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고 11월 25일에 다시 혈전을 벌였지만 역시 패배하였다.

이후 태인, 정읍, 순창 복흥을 거쳐 임실 갈담으로 넘어왔다. 여기서 해월을 모시고 장수, 무주, 영동, 황간을 거쳐 보은 북실에 이르렀다. 12월 17일 밤부터 18일까지 민보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북실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패하여 음성의 되자니로 가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 다음 북접동학군은 끝내 해산하고 말았다.

3·1 운동은 제2의 동학혁명

끝까지 살아남은 손병희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부과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동학의 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과 동학혁명의 외침이 세상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관의 손길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망명지 일본에서 본 것은 일본인들의 개화된 의식이었다.

이에 자극된 손병희는 국내의 개화혁신운동을 일으켰으나 부하인 이용구의 배신으로 일진회와 손을 잡고 친일단체화되는 동학에 충격을 받아 급거 귀국했다. 1905년 그는 즉시 이용구 일파를 출교처분하였고 수운 최제우의 “학으로는 동학이고 도로는 천도”라는 말씀에 따라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였다.

천도교로 개칭된 동학은 이후 언론 출판운동을 하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교육사업을 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교세를 확장하였다. 1900년대 초의 천도교에서 발행한 만세보는 대중적 계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신문이었다. 한편 손병희는 1913년부터 전국의 교역자 483명을 차례로 불러 특별 연성수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장차 국가를 위해서 쓰일 인재를 미리 양성해 놓고자 한 지도자의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또한 1918년 4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구실로 중앙대교당 신축을 결의하니 이는 전적으로 서서히 독립운동의 기운이 올라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대교당은 그 해 12월부터 교인들의 성금으로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19년 천도교는 전체 인구 1,800만명에 300만명의 신도수를 가진 조선 최대의 종단이 되었다. 천도교는 일제의 압제에 대항할 충분한 인원과 조직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학도들만이 참여했던 동학혁명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손병희는 3·1 운동을 단독으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종단과 정·관계 모두에 연락을 하였다. 민족운동에 동참을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절하였고 개신교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불교 스님 두 분만이 동참했을 뿐이었다. 손병희의 구상에서 시작된 거대한 민족운동인 3·1 운동은 제2의 동학혁명이었으며 갑오년에 못다 이룬 스승님들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당시 손병희는 우선적으로 천도교 이외의 집단과의 연대를 통한 거족적 운동으로 진행될 것을 추진했다. 그래서 최린에게 사회 제집단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천도교는 사회 각 진영에 비밀리에 접

촉하고 거사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개신교의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고 불교계가 참여하니 급기야 역사적인 3·1 운동은 종교연합적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천도교가 행한 노력과 희생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전교단이 일치단결해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누구의 이의도 있을 수 없었다.

운동의 대중화, 일원화(대동단결)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3대 원칙을 결정한 의암 손병희는 최남선을 시켜 독립선언서를 초안하게 하고 이를 타종단에 보내 추인을 받았다. 2월 27일 밤 천도교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밤새 3만 5천장의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다. 한밤의 인쇄기 소리를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의 조선인 고등계 형사인 신승희(신철)에게 발각되었지만 손병희는 그를 거금으로 매수하면서 민족의 전도를 방해치 말라고 꾸짖었다. 만주로 달아난 그는 후일 3·1 운동 소식을 듣고 자결했다.

인쇄된 기미독립선언서는 태극기와 함께 천도교 조직을 통해 전국으로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드디어 3월 1일, 운동을 전개기로 한 탑골공원에는 엄청난 인파로 붐볐다. 민족대표 33인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운동을 지휘할 경우 자극 받은 군중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근처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비폭력 원칙의 철저한 고수였다. 잠시후 탑골공원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위대한 3·1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한 독립만세의 소리는 전국으로, 3월 말에는 만주, 시베리아, 미주 등 해외에서까지 조선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선언케 했다. 2만여 회에 걸친 시위에 동원인원이 500만 명을 넘었다. 투옥된 조선인이 4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운동의 3대원칙 중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운동방

식은 세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 손병희

거족적인 3·1 운동이 비록 일제의 극악한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그 실패의 1차적 원인을 우리의 외침에 동조해 주는 외국 세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래서 우국지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대표할 정부와 같은 기관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그와 같은 정부를 통하여 우리의 의사를 해외에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에 모두 10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그해 10월달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 임시정부 모두가 과거의 대한제국의 이씨들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앞으로 우리들의 정부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화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끌 수반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수반으로 임명된 인물은 당시 민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수립된 임시정부 중 손병희를 수반으로 추대한 정부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만든 대한국민회의 정부, 기호지방에서 만든 대한민간정부, 서울에서 만든 조선민국정부 등 3곳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정부의 수반으로 손병희를 뽑는 그 순간 손병희는 일제에 의해 3·1 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즉, 이들 3곳의 정부를 만들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손

병희는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실제로 상해로 통합된 임시정부에서도 손병희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자 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역시 실패하고 가장 외교를 잘 할 것 같은 인물인 이승만을 세운 것이다.

결국 천도교단은 임시정부를 세울 때 상당액의 자금 지원을 하고 교단을 대표해서 신숙과 최동오를 파견했다. 이들은 모두 의암 손병희가 기른 제자들이었다. 특히 최동오는 후일 임시정부의 법무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손병희가 봉황각에서 483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수련생 중 한 명이었다.

손병희와 천도교

동학혁명의 전위에 섰던 지도자로서 그리고 3·1 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솟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의암 손병희 성사의 행적은 아무리 칭송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학시대를 마무리하고 천도교 시대를 이끈 의암의 리더십은 가장 변혁적인 상황에서 출현한 리더십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동학 천도교를 안정적 기반위에 올려놓아야 할 시대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런 과정에서 손병희는 끊임없이 추종자들과 소통했고, 그들의 모든 꿈을 엮어 원대한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그 것을 향해 모두가 일치되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손병희는 천도교도들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고 또 행동하게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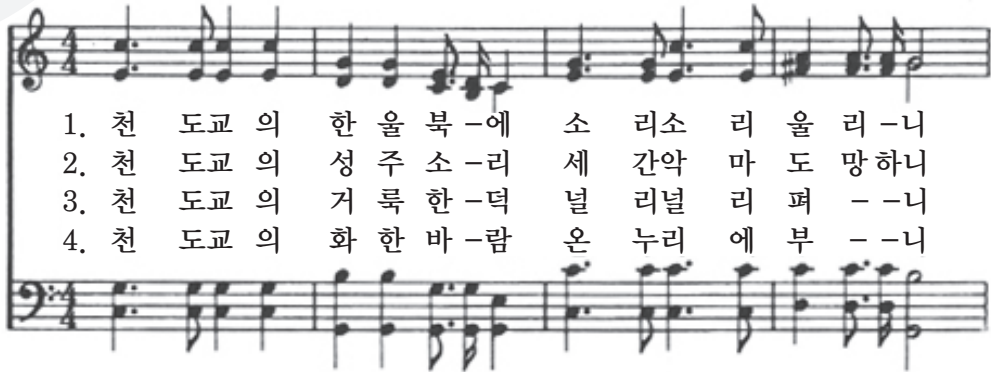
독립대표 33인 중의 대표인 손병희는 서대문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병보석으로 나왔으나 곧 사망했다. 옥사였다. 시신은 구 경기도인 고양군의 북한산 기슭(현재의 강북구 봉황각)에 모셔졌고 백범 김구는 해방 후 환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의 무덤에 참배함으로써 민족을 대신해 감사의 헌사를 하였다.

오늘 천도교는 다시 변혁적 상황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시대 조류는 물론 급락하는 교세와 뿔뿔이 흩어지는 교인들의 각자위심도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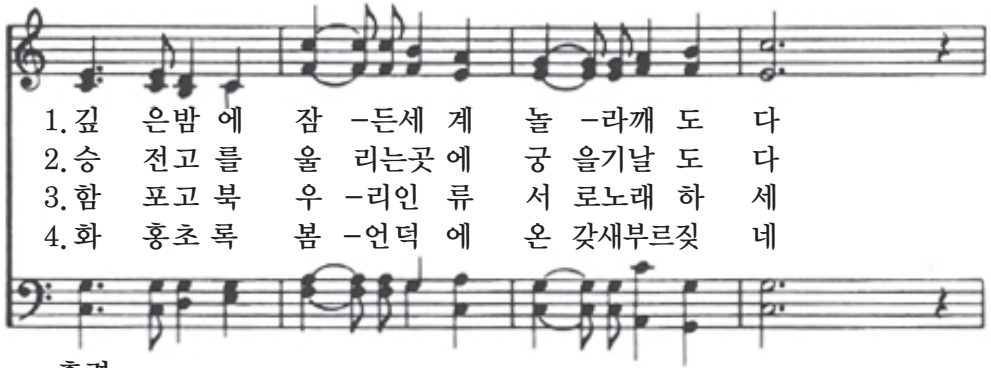
교회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이 오늘처럼 그리운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손병희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병희가 오늘 살아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암 손병희 성사님을 다시 한 번 되찾고 그를 기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 -에 소 리 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 -리 세 간악 마 도 망 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 -덕 널 리 널 리 퍼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 -람 온 누리 에 부 -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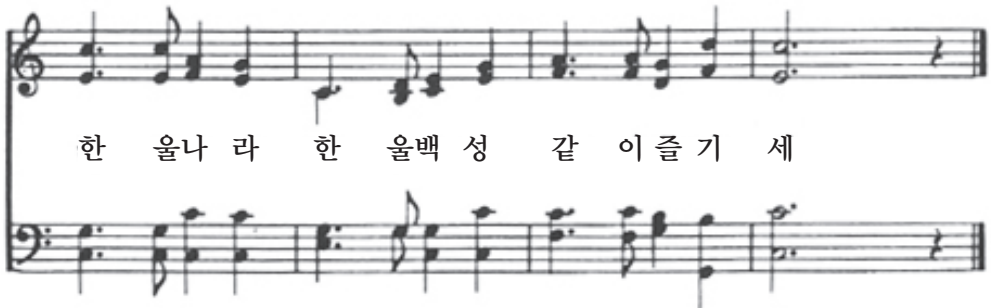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를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북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홍 초 록 봄 - 언덕 에 온 갖 새 부르 짓 네

후렴



듣 도 보 도 못 -한 이 - 풍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삼일절 노래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Memo
